

제 5강 제국의 성격과 대항제국

◆1교시: 탈중심화, 혼종주의, globalization.

▲세계자본주의의 기본골격

그러면 다시 3항으로 가서 근대민족국가와 제국주의,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게 근대성의 기본정치구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거는 아주 절대적인 예외주의에 의해서 사실은 이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들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지는 거는 괜찮다. 다른 나라들은 대량살상무기 같은 경우, 핵도 그 중의 하나이지만, 그런 거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시작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가 시작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예외성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리바이어던의 아주 최근의 심리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서 유럽제국주의가 각국에서의 리바이어던 구축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어갔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일컬어서 유럽중심주의적 발상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라고 봤을 때에 자본주의가 만약에 아시아라거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타나서 다른 데로 쪽 전파해나간 것이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세계전역에서 동시적으로 뭔가 전염병처럼 동시적으로 발생한 그 무엇이라거나 한다면 이 서술은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유럽에서 나와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간 것이다.

근데 소위 내재적 발전론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각 지역에서 다 자본주의의 맹아가 생겨나고 그게 다 각국에서 발전되어 가려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유럽에서 싹을 자른 식으로 묘사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김용석 같은 사람들(연대 교수였기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쓴 한국에서의 농업자본주의의 발달에 관한 연구서들 보면 어떻게 조선후기에 농촌에서의 양극분해가 진행이 되었느냐. 내버려뒀다면 여기에서도 자본주의가 발전되어 나갈 것이었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많은 사회주의자들도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해왔어요. 북한의 역사도 기본적으로 그렇거든요. 내재적 발전에 입각해 있습니다.

근데 네그리나 하트는 이식론적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내재적 발전과정을 상업적으로 잘라낸 게 아니고 자본주의 그 자체가 유럽에서 발생해서 외부로 확산되어 갔다고 하는 관점이지요. 이걸 정치경제학적인 많은 논쟁점을 함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통론적 입장이지 않느냐란 비판도 가능한 대목이지요. 그래서 영국내에서의 발전은 내재적이었다 할지라도 이게 해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유통의 과정이 선행되고, 거기에 생산이 뒤따라 붙는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확대되었다고 보는 거니까. 지금 내재적 발전론이 1990년대 이후 들어와서 거의 다 말하자면 이론적인 패배를 자인한 상태입니다. 거의 내재적 발전론을 주장한 사람이 없거든요. 사회주의붕괴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통론이 승리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자본주의 그 자체의 해외로의 전파과정의 이식성, 이거는 어떤 공론처럼 이제는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지요.

한국문학사에서도 임하 같은 사람들이 이식론을 주장했었습니다. 이식문학론이라고 하는데, 근대문학은 이식문학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한국의 근대문학이 내부적인 방법

에 따라서 이뤄진 게 아니고 일본문학의 수입과정에서 근대문학이 탄생했다는 걸로 설명을 했고, 조선신문학사를 바로 그 관점에서 서술을 했었는데, 이거 문학사내부에서의 논쟁점 지점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러한 인식문학론이나 지금 자본주의의 유럽발생설과 그것의 대외확장설, 이것이 이 책에서는 세계자본주의를 설명하는 기본골격이 되어있다는 것만 일단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음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족국가의 경계의 확장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식화 되는데요. 그거는 다음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걸 다시 한 번 꼬집어서 보면, 뒤에 나온다는 거는 11항입니다. 이게 3항과 11항이 일종의 대항논리를 제기하는 것인데, 자본주의는 유럽 중심적이지만, 그것에 대한 대항운동은 전 지구적이다. 이게 저자들의 명제입니다. 유럽에서 나왔으니까 유럽운동을 따라라. 이건 아니거든요.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운동만이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자본주의를 설명함에 있어서의 유럽중심주의, 자본주의의 확산에서의 유럽중심주의가 분명히, 그것이 대항운동의 유럽중심주의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 그거를 유념하셔야 합니다.

▲탈중심화(탈영토화)

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거기 보면 둘째 줄 첫 단어 “중심을 수립하지 않는다.”하는 글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정된 경계나 장벽에 의지하지 않는다.” 중심문제와 경계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탈중심화 혹은 탈영토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탈영토화는 물론 들뢰즈-가타리의 개념이죠.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이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제국주의에서의 제국주의단계, 근대적 주권국면에서의 중심과 여기에서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적 주권에서의 중심은 다른 외부의 것들을 내부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식민지의 원료들을 자국으로 가져온다거나 상품을 판매해서 남는 이윤을 가져온다거나 자본을 수출해서 나오는 이자를 가져온다거나해서 모든 걸 다 중심으로 수렴되고, 주변은 그만큼 가난해지거나 더 황폐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그러한 중심으로서 기능한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그 중심이 지역적으로 어떤 고정된 장소에 위치해있었다는 거, 그래서 18,9세기로 친다면, 영국의 런던이 되겠고, 20세기로 들어오면 점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하게 되는 그런 식의 중심이 있죠.

그런 중심이라면, 탈근대적 네트워크 권력에서의 중심인 미국이 지금 국민국가로서의 미국이라고 이름을 썼지만, 지역으로서의 미국, 지도 속에 있는 북아메리카의 미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정체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북아메리카의 특정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단위에 대한 이름이라기보다 바로 전 세계, 전 지구의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권력들을 통합하는 것으로서만 기능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통합의 장소가 대체 어디냐 라고 물으면 지구전체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소적으로 고정된 중심은 없다는 것이죠. 예컨대 미국국방부에서 회의를 할 때는, 한국의 경우에는 무슨 한반도 지도를 그려놓고, 아마 세계지도로 참조로 사용하겠죠. 미국국방부 그렇게 안합니다. 제가 국방부회의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전 세계를

놓고 여기에 십자를 긋고 사령관들이 지구중부사령관 있죠. 그 다음 북부사령관, 남부사령관 이런 식으로 사령관이 임명이 되어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전체가 관할무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하고는 상상력이 다르게 그 회의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초국적 기업들이 회의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의 국방부의 회의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전 세계를 놓고 이번에는 어디 가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까하는 문제로 발상이 가는 것이죠. 전혀 민족국가단위로 의논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마치 중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 속에서의 힘의 어떤 동력적인 진동체, 그런 거로 이해를 해야지 북아메리카의 워싱턴의 백악관,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제국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의 단일한 민족국가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을 그렇게 보지 않고 단일한 국민국가로, 경계에 의해서 틀지어진 국민국가로 보게 되면 이 그림도 결국 NL적인 흐름으로 나가게 되죠. 미국해방론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전혀 미국개념이 다릅니다. 그거는 7항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부르는 두 가지 이름이 있죠.

United States가 있을 수 있는데, United Nation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UN하고 비슷한 식으로 표기를 하잖아요. 우리말에서는 국(國)이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미국, United Nations들의 헌법들은 경계가 열려있다. 열려있는 경계를 가진 헌법체계가 출현했다. 라는 게 이 책에 미국론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미국헌법은 단혀있는 헌법체계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목차에서 보면 2부 5장, 이 책의 페이지로는 220페이지에 248페이지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그것이 갖고 있는 헌법체계의 특성이 뭐냐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미국이라는 말 그러면 민족으로 느껴지니까 뭔가 따옴표를 친다거나 다른 표현법이 요구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장황한 설명을 통해서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덧붙이고 있는데, 이름이 달라질 필요성은 일단 있는 것 같고, Empire라고 하는 것이 요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들은 그중에서 경계들이 희미해져가는, 흐물흐물해져가는 그런 것들로 현재는 담겨있다고 파악하는 게 좋겠습니다.

▲혼종주의와 globalization

혼종의 얘기가 거기 나오죠. 혼종, 하이브리드. 지금 혼종이야기를 생물학적 차원에서 아주 잘 풀어내고 있는 사람이 해러웨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한 강의에서 보면, transuranic시대에서부터 transgenic, 유전자변형국면으로의 이행이 있었다. transuranic, 초우라늄시대는 냉전시대이고 유전자변형시대는 신세계질서, New World Order에 해당된다. 그래서 핵폭탄보다(핵보다도) 더 엄청난 변화가 유전자변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오늘 그 얘기를 정민정 선생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혼종이라고 하는 게 해러웨이가 강조하는 잡종화, 성별간의 뒤섞임, 종들 간의 뒤섞임, 이것들을 지칭하는 용어죠. 그럼 우리는 어떤 국제결혼이라거나 국제이민이라거나 문화적인 혼종들, 이런 걸 통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나가는 그런 현실 앞에 직면해있는데, 이제 이 혼종과정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지는 거죠.

하나는 무조건 좋다. 막 이렇게 되어가니까 엄청 좋다. 이런 입장이고, 아까 globalization에 대한 태도와 비슷합니다. 또 하나는 이거 문제다. 순수성이 침식당하고, 유전자가 오염되고, 유전자공해가 발생한다. 이걸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해서 두 가지 태도로 나눠지는데, 지금 이 두 태도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결과는 알지 못하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우리가 측정 불가능했던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 이미 던져진, 태어날 때부터 던져져있는 것이죠(이제는). 던져져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 상황자체에 대한 평론가적 태도로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거는 전혀 무용한 논쟁거리밖에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주의는 오히려 파시즘적이라거나 이런 원본에 대한 집착, 표준에 대한 집착, 이런 거를 낳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 그래서 자본을 거둬들이는, 이런 찬양과 마찬가지로 자기 위험성을 수반하는 관점일 수 있다. 하는 게 해러웨이의 생각인데.

지금 제국은 어쨌든 혼종과정, 하이브리드 과정의 가치론적 평가, 평론적 입장에서 말하는 그 평가를 떠나서 혼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로서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을 하고, 이 혼종에서 출발해서 자기 자신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정치경제학 쪽에서 보게 되면 이 혼종과정은 사실은 다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혼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주장은 근대의 internationalism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주의로, 국가간의 경계에 막혀 있지 말고, 우리가 국가 속에 사는 민중들의 형제적 관계를 만들어내자. 이거 혼종주의자죠(사실상). 물론 혼종이 제한적이죠. 국가경계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혼종화하는 것이니까. 바로 혼종적 주장을 자본이 받아들인 게 지금의 globalization이거든요. internationalism을 더 래디컬하게 만들어버린 거죠(어떻게 보면). 여기 national에 inter를 붙이면 international이 되잖아요. 근데 globalization은 internationa보다도 더 급진화된 international이죠. 그래서 아예 national 자체를 괄호쳐버리는 방식으로, 이것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방식으로 global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자본이랑 globalization을 채택하는 것은 68년 이후에 정치경제적 상황 특히, 노동자들의 투쟁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68년 혁명에서 노동자들이 공장과 공장 바깥에서 격렬하게 투쟁을 하면서 노동거부를 주장했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산업자본형태로 머물러있을 수가 없었어요. 돈이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폐쇄, 공장 문을 닫는 그런 자본가 파업들이 이어지고, 이 자본들이 화폐자본으로 변환이 되어가지고 IMF에 결집을 하거든요. IMF는 1944년에 만들어지는데, 1970년대 초 이전까지는 유명무실한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68년 혁명에서부터 교훈을 얻고, 이게 일국적 방식으로 더 이상 돈 못 벌겠다. 라고 생각한 자본들이 IMF로 돈을 모아가지고 전 세계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 아프리카로 갔다가 메뚜기 떼처럼 집어먹고, 그 다음 라틴아메리카 갔다가 그 다음에 아시아로 오게 되는, 3단계 이행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서구는 생산의 공동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화폐자본화가 나타나는데, 화폐자본이야말로 국경을 넘어서 떠도는 자본형태잖아요. 진정한 internationalism이고 초국적 상태가 되면 global 자본이 되는 거죠. global-capital이 되는 거죠. international-capital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요구, 우리한테 언제부터 국가가 있었냐. 라고 68년 혁명에서의 노동자들과나 학생들, 여성들은 외쳤다 말이죠. 우리는 관료주의, 즉 국가체제를 받아들일 의향이 전혀 없다. 바로 국경을 갖다가 계속 설치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국가도 문제가 있다. 상황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의 투쟁의 한 형태로 소련에다가 전보를 막 쳤습니다. 소비에트 관료들이여, 벌벌 떨고 있어라. 이런 식의 전보를 보내고 그랬었죠.

이런 식으로 국경을 장애물로 생각하는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있었었는데, 이것을 위에서 흡수하는, 이걸 co-optation이라고 부릅니다. co-opt라면 이렇게 흡수하는 걸 말하는데요. co-optation은 자본의 지배의 전형적인 방식이거든요. 자기가 뭔가 방법을 개발하는 게 아래로부터의 힘들에서 모델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지배의 양식으로 이렇게 바꿔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차로 치면 자본이 달려가는데, 바로 아래로부터의 투쟁의 양식들을 마구를 씌어가지고 이게 말을 끌게 만드는 식으로 매달아가는 거죠. 이걸 co-optation이라고 부르는데, co-optate한 방식이죠. globaliz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국제주의, 혼종주의는 아래로부터의 요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융합된다. 섞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건 네트워크란 말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죠. 서로 섞이는 거죠. 네트워킹 된다고 하는 말거는.

▲세계지리의 변화

그 다음 세계지리의 변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 가지 세계의 공간적 구분의 해체, 1세계, 2세계, 3세계, 이거 종속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1세계는 서구의 선진적자본주의, 제2세계는 사회주의진영, 제3세계는 알라라고 부르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이런 식의 제3세계들이 지구를 분할하고 있다고 봤는데, 이게 종속이론에서 주변부 자본주의론에 이어질 때까지 효과를 발휘했던 일종의 지리학이었습니다. 그렇게 분화되어 있다고 보이니까요(분명히).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굉장히 발전된 사회로서 인공위성을 미국보다도 먼저 쏘아 올릴 정도로 앞서갔잖아요. 1935년에 러시아는 즉, 소비에트연방은 1907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세계에서 중간도 못 갔거든요. 근데 35년, 불과 십몇 년 만에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섭니다. 그람시가 감옥에서 소련의 엄청난 경제발전을 바라보면서 미국과 소련에서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산방식이 뭐냐를 연구하는데, 그게 포드주의였거든요. 소련도 포드주의 쓰는 거고(전기화죠), 그 다음에 이쪽 미국도 포드주의 쓴다고 봤는데, 어쨌건 포드주의를 통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50년대는 소련이 미국을 거의 추격할 정도였다고 봐도 좋겠죠. 일정부분에서는, 항공부분에서는 소련이 더 앞섰던 것이죠. 당연히 그러는 게 미국은 기업들이 사기업으로 쪼개지는데, 소련은 국유기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 기업으로 봤을 때는 소련이 훨씬 더 컸던 거죠. 국가기업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공우주산업처럼 거대한 투자, 회전이 큰 투자가 있잖아요. 몇 년 만에 한 번 생산 산물이 나오는 거, 회전을 많이 큰 산업일수록 국가에 뭉치는 게 그때는 유리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항공우주산업은 소련이 앞설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서 미국이 충격을 받고, 누굽니까? 1960년에 총 맞아 죽은 사람 있잖아요. 아, 케네디. 케네디가 바로 우주항공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마치 박정희가 죽기 전에 중화공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역진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제2세계가 뚜렷한 모습을 갖추고 나타났고, 제3세계는 훨씬 그에 못 미쳤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많이 보게 되면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제1세계 내부에서 제3세계, 오히려 제4세계라고 하는 게 더 나올 거예요. 미국은 우리에게 비해서 훨씬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미국의 빈민층들은 한국의 빈민층들보다도 더 극심한 빈곤을 경험하고, 질적인 측면, 즉 소외감에서 보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슬럼가의 흑인들이라거나 또 소수의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싸죽이고 싶은 그런 욕망 있잖아요. 여기에 사로

잡혀있죠. 아직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제4세계라고 부를만한 게 미국 사회에 생겨나고, 프랑스도 거의 마찬가지지 않아요. 방리유 Banlieue지역 같은 경우에 지난번 반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한국보다도 그게 더 많이 벌어져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겹겹이 중첩된 차별 때문에 인종적, 문화적, 경제적 그런 차별기구들이 훨씬 더 발전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제3세계라고 불렀던 곳에서,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서울의 시간대는 제3세계 시간대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1세계 시간대죠. 그래서 그 규모로 보나 삶의 질이라거나 이런 걸로 보나 제1세계적인 양상들이 서울에서 더 많이 벌어지는 거죠. 강남과 비강남권의 부분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 또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그건 학력의 차이들, 문화적 격차들이죠. 이런 게 뚜렷한 실선으로 계급화 되어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구멍이 뚫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지역이 제1세계로 구상이 되고, 나머지가 전부 다른 세계로 밀려나는 그런 구조죠. 이 실선들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지역적인 특이성들이 강화되는 것이죠(오히려). 제1세계가 예전에는 이분법으로는 북방과 남방으로 딱 나뉘어졌습니다. 북과 남으로 나뉘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의 선을 어디에서 어떻게 그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세계를 가르는 지리학적 경계선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훨씬 더 복잡해진 구조로서 곳곳에 특이한 발전지대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세계지리 혹은 지정학적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affect의 개념

여기에서 몇 가지 어려운 용어들을 먼저 해결하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거기 보면 소통, 협동, affect, 이게 산업공장노동의 역할축소를 대체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affect란 말이 좀 생소하죠. affect는 일단 철학적으로 많이 번역된 용어를 한 번 생각해 보면, 이 용어가 아직도 정착이 전혀 안되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들을 제시하는데요. 맨 처음 번역될 때의 용어는 변용력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affect를 주로 변용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스피노자에서 연유하는 개념인데).

그러다가 최근 들어와서 들뢰즈 철학이 확산되면서 여기에 상응하는 많은 번역어들이 개발되고 있는 중인데, 감응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정서,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비물질노동과 다중』에서 우리는 정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번역어를 확정짓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 변용이라는 말도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는 겁니다. 들뢰즈에게서 이 affect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다른 힘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 중간지대에 affect가 놓여있거든요. affect가 없으면 이 들어온 걸 그대로 통과시켜버리겠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일정한 굴절을 시켜서 내보내는 힘을 affect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동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수동할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외부의 힘을 갖다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이 없는 경우 대개 많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listen, 이거 hear하고는 다르잖아요. listen하는 건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는 걸 말하죠. 경청한다. 그런 표현. listen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봐도 좋겠죠.

그 다음에 예컨대 영어에서 look하고 see하고 또 다르잖아요. look한다면 이렇게 훑어보는 걸 말하죠. see한다는 건 내면을 이렇게 간취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see가 오히려 수동할 수 있는 힘, 이렇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우선은 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른 것을 차이생산, 다른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요구되는 거죠. 수동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걸 생산할 수 있는 것,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비로소 변용이 가능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변용이라는 말이 그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변용이라는 게 이 affect라는 말에는 사실은 없는, 어원론적으로는 없는 거를 의미론적으로 해석해서 집어넣은 번역어이기 때문에 이게 즉각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는 이 세 단어와 이 말은 원래 뜻이 가까운 용어인데,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이 변용성을 함축할 수 있는가. 그런 걸 둘러싸고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어쨌건 affect는 그런 것을 담고 있다.

그 외에 또 affect하고 affection도 다르고, 복잡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그런 정도를 일단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affect의 상품화

그럼 노동에서 affect가 적용된다고 하는 거는, affect의 노동의 응용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의 서비스노동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환자를 돌본다. 라고 했을 때, 그 환자를 기계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의 정성과 사랑을 쏟는 경우는 다른 효과가 있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의 affect 능력, affect가 우리 삶의 생산과 재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이것을 이제 affect가 원체 소비자의 관계와 중요하기 때문에 114전화국이라거나 동사무소라거나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노동자들에게는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으로까지, 과잉affect가 강요되기도 하죠.

백화점 같은데서 들어가면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흉내 낼 수 없는 독특한 어휘로 말을, 인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쨌건 이게 affect의 상품화죠(사실상). affect를 어떤 형태로든 상품으로 제출하는 그런 건데, 그것이 띠고 있는 현재적인 형태들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일단 우리의 노동활동의 많은 부분이 affect적인 성향을 띠어가고 있다는 것, 일단 그것만 주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삶-정치적 생산

그 다음에 앞으로 반복해 나오겠지만 bio-political-produ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걸 포함합니다. 삶-정치적 생산의 아주 뚜렷하게 대표되는 건 예컨대 생명상품생산이겠죠. 그래서 양코마우스라거나 생명자체가 아예 상품으로 개발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연말이 되어가지고 형제들을 모처럼 만났는데, 우리 형님 중에 한 분이 운전을 합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을 하는데, 일화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디가십니까? 했는데 대답하지 않고 자기 옆을 바라보는데, 한쪽 눈에 뭍니까. 하여튼 안대를 했대요. 한쪽 눈으로 쳐다봐서 기분이 좀 나빴지만 참고 가는데, 자꾸 옆으로 쳐다봐서 왜 자꾸 쳐다보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자기 한눈으로 잘 보이니까. 확인해보기 위해서 쳐다본다고 하더라

니다. 더 얘기를 진행시켜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눈을 팔고 오는 길이래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7천만 원을 받았는데, 원래는 1억을 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뭐 떼고, 뭐 떼고 하더니 3천만 원 떼고 7천만 원밖에 안 주더라 하면서 나쁜 자식이라고 막 욕을 해대면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떻게 눈을 떼서 파느냐. 그랬더니 7천만 원이라는 그거 적은 돈이 아니다. 전라도 말로 하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한 번 사업을 해보려고 그랬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중국의 장기들이 엄청나게 수입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더붙어서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잘 안하니까 제3세계 권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서 장기들이 구입되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로 이어졌습니다. 여하튼 상품, 신체자체의 상품화, 신장(신장은 3천만원정도 준다고 그러던데) 신체자체의 상품화는 말할 것도 없고, 양코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암에 걸려서 나오는 쥐거든요. 유전자조작을 통해서 애초부터 암에 걸려있게 만든 쥐예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걸 많이 구입해갑니다. 암 테스트를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암 걸린 그런 종으로 태어나 있는 거죠. 하버드대학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어요. 생명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생명의 생산과 재생산 이게 실험실과 공장에서 이뤄지는 거죠. 생물종 자체가 그렇게 이뤄진다는 겁니다. 이런 게 삶-정치적 생산과정의 한 예가 될 터인데, 이 용어는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라서 좀 전에 말한 affect, 즉 정동적인 생산과정이라거나 지적인 생산과정들이라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삶-정치적 생산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bio-political할 때 bio-politic을 네그리-하트에서는 이걸 생명정치로 해석을 하면 너무 협소해져버려요. 너무 좁아서 지금 이 말이 담고 있는 총체적 의미가 많이 왜소해진다는 것, 지금 삶-정치적 생산은 목차에서 보면, 1부 2장하고, 3부의 대부분인데, 특히 4장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주제죠.

◆2교시: 제국적 성격과 요소, 대항제국과 제국너머

▲제국적 성격

그 다음 제국시대 미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미국을 유일 초강국이라고 보는 관점,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민족국가로서의 미국을 유일초강국이라고 보게 되면, 대체 지금 우리가 무엇과 맞서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미국으로 빠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낡은 관점 있죠? 낡은 적대적 관점, 미 제국주의와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귀착되게 된다.

며칠 전에 박노자 씨가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상기해야 된다. 한국기업들이 동남아시아나 심지어 라틴아메리카에서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착취를 하고, 정당한(정당한 말이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어쨌건 그렇게 썼던데요) 그런 대우를 안 해주면서 그쪽 지역의 표적이 되고 있는 현실, 한국 그러면 완전히 제국주의국가로 파악하고 있는 현실을 눈여겨 봐야한다는 것이죠. 반미적 시각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과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실천적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체 지금의 미국이 뭔지, 과연 유럽제국주의로서의 유럽, 핵심적으로는 처음에는 네덜란드였고, 그 다음에는 스페인이었고, 그 다음에는 영국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어져 온 유럽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런 유럽 세 나라들을 대체한 새로운 제국주의 나라로 미국을 이해해서는 현재의 세계질서에 걸 맞는 정치학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하는 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 구성의 제국적 성격

지금 미국 구성의 제국적 성격에서 이미 이야기 된 거는 개념적 차원에서는 물질적 구성과 형식적 구성의 차이, 그건 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constitution이라고 하는 영어의 번역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구성이라고 하는 말로도 되고, 그 다음에 헌법, 혹은 정치체제할 때 정체, 이런 용어로도 되는데, 여기서 구성이라고 번역해서 머리에 쏙 들어오지 않죠. 들어오지 않는데, 이 constitute, constitution이라고 하는 용어는 옛날에 CA그룹이라고 있었습니다(80년대 초에). 이게 Constituent Assembly라고 하는 말의 첫 글자를 딴 건데, 제헌의회라는 말입니다. 구성적 의회라는 말이죠. 한국도 이승만 정부 때 제헌회의가 열렸었는데, 제헌한다. 헌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헌법을 구성해낸다.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아예 창조해내는 것, 이걸 제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constitution이라고 하는 용어는 바로 창조와 제작, 이걸 또 노동이라는 말도 함축하는 건데,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네그리의 전체 정치학에서 아주 핵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1부의 제목을 보면, 이 구성이라는 것도 constitution이거든요. 정치적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구성이라는 말이 되어진 결과를 의미한다기보다도 오

히려 그 행위를, 그 과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하면 더 잘 들어올 것이고요. 형식, 물질의 차이는 일단 이야기가 되었고, 미국 헌법의 특수성에 대한 네그리-하트의 고유한 생각이 있는데, 논쟁적인 영역입니다.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미국헌법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방식으로만 설명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네그리나 하트가 비판하고 있는 그런 시각, 미국은 제국주의다. 라는 시각에서 미국헌법의 유형성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헌법은 어쩌면 두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하나는 바로 열린 그 개방성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는 측면하고, 그렇지 않고 원주민들에 대한 배제, 노예들에 대한 격하, 그러면서 점점 중심으로 부상하려고 하는 욕망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동시에 있다고 봐야 될 터인데. 이 책에 보면 미국에 대한 서술이 계속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미국이 그런 제국적 지평에서 태어났다고 45년도에서 65년까지 약 20년 동안은 제국주의로 갔다가 다시 베트남전쟁에서의 패배이후(패배는 75년도인데) 다시 제국적 모델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거야 말로 미국헌법이 갖는 두 가지 측면이 역사적 국면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헌법이 갖는 이런 개방성과 제국주의와는 다른 의미에서의 제국적 특성이 오늘날 살아남았다고 하는 의미는 미국헌법은 제국적 요소를 전혀 안가지고 있다는 의미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제국개념의 3대 요소

그 다음에 제국개념의 3대 요소, 지금 여기 세 가지 요소, 일단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은유가 아니고 일단 개념이다. 개념이라고 하는 말을 혁명의 시간에 가면 이름이란 말로 바꿉니다. 네이밍, 이름붙이기, 이름이라고 바꾸는데,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 속에 있는 어떤 공통성을 추려내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거는 고정도로 하고.

세 가지 개념이 등장, 첫째는 경계의 결여,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 한 바죠. 국경을 예를 들어서 그 경계들이 점점 해체되고 하이브리드, 혼종 되어가는 현실들, 그래서 자본들끼리도 혼종을 하죠. 자본들끼리의 병합, 합병 이런 것들이 뚜렷한 현상들로 나타나고 그 속에서는 인종들, 민족들, 문명들, 문화들의 혼종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경계의 결여는 좀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시간의 종말, 역사의 정지라고 하는 거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하죠. 이게 옛날에 한마음 출판사인가 어디에서 번역되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십여 년도 더 된 거 같은데요. 후쿠야마는 일본계 미국인인데, 이 사람이 역사의 종말을 언제를 역사의 종말로 선언 하나 하면 1991년을 역사의 종말로 선언을 하거든요. 사회주의의 붕괴가 역사의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헤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헤겔에게서 보면 시간의 종말 개념이 정신현상학에 등장을 하는데, 들뢰즈 철학의 지층들과 고원들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절대정신이 객관적 운동과 주관적 운동의 합치를 통해서 절대적 정신에 도달하는 순간이 시간이 끝나는 때라고 헤겔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체적으로는 프로이센 국가, 독일의 프로이센 국가의 완성이 바로 시간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단언을 하는데, 후쿠야마는 그로부터 약 백 몇 십 년

뒤에 다시 한 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끝난다고 하는 것을 네그리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 시간이 끝나는 게 어떤 시간이 끝나가는 거냐. 모든 게 정지한다는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 했지만 두 개의 시간이 있잖습니까. History가 있고, 표면을 전개하는 History가 있고, 여기에서의 Geschichte가 있습니다. 발생의 시간이죠. 이 Geschichte는 발생은 계속되는 거죠. 다만 History라고 하는 거는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런 두 개의 시간관에 따르면 역사의 종말개념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국의 지배가 작동하는 그 대상영역이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에서 보면 삶 전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bio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이라고 번역하는 게, 사회적 삶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삶에 대한 제국의 태도를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늘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평화, 때로는 구원을 이야기하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테마가 제2차 이라크 전쟁 때는 더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1차 이라크 전쟁 때라거나 발칸 전쟁 때라거나 이때는 평화가 더 우선시되었습니다.

근데 구원테마가 나오게 되는 거는 미국의 네오콘들이 유대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재정적으로 장악되는 시기하고 거의 같이 나타나죠. 영화적으로 보면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구원의 테마가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인류를 구원하는 존재, Neo 같은 경우도 일자, One이라고 하는 글자를 뒤섞어 놓은 거죠. O자가 뒤로 가면 Neo가 되잖아요. 일자에 대한 설명으로 나타내는데 어쨌건, 부시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구원자로, 네오콘 자신이 구원자로, 지금은 인류구원자로 내놓는 때이죠.

근데 구원의 방식이 마치 평화의 관념체계가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구원의 테마는 테러에 대한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싸우나 하면 악의 축들과 싸우는 거죠. 악과 싸워서 이기는 그 어떤 해방자이자 선의 실체로서의 네오콘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마 네그리가 글을 쓰면 구원이라고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91년부터 98년까지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대항제국과 제국너머

그 다음에 대항제국과 제국너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Counter 개념이 나오는데요. 대항제국이라고 했을 때 Counter-Empire라고 쓰고 있습니다. Counter라고 하는 게 유도 같은 거 보면 나의 힘을 가지고 적을 쓰러트리는 게 아니잖아요. 적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쓰러트리는 게 유도의 기본 방식이고, Counter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re-sist할 때 re-sist한다. 이렇게 맞서있는 상태, 분리된 두 개가 맞서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엮어져 들어가서 어떤 결과를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싱 같은 거 할 때도 결정적 펀치는 상대방이 공격해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의 작은 힘으로 상대방을 거꾸러뜨리는 것이고, 예컨대 기운동이라거나 태극권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우리가 두 개로 봤는데, 표현이자 봉쇄로 봤는데, 봉쇄되어있다는 거는 부정적 표현이죠. 뭔가 갇혀있다는 거죠. 봉쇄되어 있는 안은 뭐냐는 겁니다. 무엇이 봉쇄되어 있는가. 결국 이게 갇혀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려내버리고, 이것을 외면하고 이렇게 굴을 파는 방식은 유효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것을 외면해 도망치는 방법이 있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

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며, 지금 이 자체의 힘들을 바로 다중의 힘으로서 재전유하는 것, 일단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재전유하는 것만으로는 또 부족합니다. 창조의 과정이 따라야 하니까요. 그 재전유의 과정이 완전히 새로운 지평의 구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저항의 과정, 이 re-sist, 맞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 체제에 구멍을 내는 것, 마이너스 시키는 것, 빼기가 필요한 거고, 궁극적으로 이 두 개는 구성에 공모해 들어가는 겁니다. 건설, 구성, 새로운 창조.

그래서 탈주에 머무는 건 끊임없이 고양이 앞에 쥐처럼 도망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근대성의 저항의 논리, 이거는 바로 이 힘들이 이것의 표현임을 고려할 때는 한계 지워진 투쟁의 방식이라는 것, 그러나 이 두 개의 방법을 구성 속에 결합시킴으로서, 재현의 논리 속에 결합시킴으로서 새로운 차원을 열어나가자. 그게 Counter-Empire의 논리입니다. Empire의 힘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죠. 역이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자본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보통 반혁명이라고 부를 때, Counter-revolution이거든요. 근데 Counter-revolution을 마치 진보가 아니라 거꾸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치이론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반혁명들은 항상 그 속에 진보를 함축한다는 거죠. 혁명을 하는데, 자본의 역방향으로 혁명을 하는 거죠. 신자유주의도 반혁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뭔가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 진보적인 거, 뭔가 모를 구성적인 힘, 이게 자기가 원하던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거죠.

예컨대 이명박에 투표한 사람이 다 바보들이 투표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뭔가 바뀔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지점들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의식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감성적 상태라거나 이런 데서 결정적으로 역행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진전의 가능성에 그것이 아무리 나쁜 것들을 수반하더라도, 진전의 가능성에 투표하는 거죠(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투표를 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카운터의 논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로마, 중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번을 하겠습니다. 미국중심주의적 발전을 자본력이 해온 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늘날 이미 지구화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항하는 힘은 전 지구적인 수준에서 출현하고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수강생 질문>

질문 있는데요.

자본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해가 가는데요. 제국에 대한 개념 있잖습니까. 제국의 모델이 로마와 조금... 중국이라고 하는, 근데 이걸 맑스가 아시아적 전제, 그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제국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해서 한정을 짓고 있지만 자본은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아시아적 무대에서 중국의 제국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왜 모델이 되지 않는지, 오히려 그런 특수성 같은 게 실제로 제가 보는데 지

금 이 구도 안에서 미국이 자기가 저렇게 있지만, 경계하는 나라가 유일하게 지구상에 저 중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다시 어떤 이런 모델들이 뭔가 좀 아주 신화적이지 않겠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모델이 맨 위에(미국 말고) 중국이 들어갔을 적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위험, 저는 그런 것도 사실은 상상을 좀 해보는데, 그럴 적에 로마라는 국가와 중국이라고 하는(지금의 중국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걸 확실하게 연구자들이 지리적인 한계에서 오는 인식, 왓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게 아닌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미래전망까지 들어가 있는 얘기인데, 일단 중국하고 로마의 지배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화이론에 입각해서 지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있고, 오랑캐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랑캐들을 배제하면서 자기한테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영토경계를 구축해왔다. 그러니까 동이 같은 경우(우리가 동이인데) 동쪽에 있는 오랑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중화라는 거는 중앙을 명백하게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로마는 커다란 골격에서 차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pax라고 하는 거는 평화를 말하는 거죠. 팍스로마나이기 때문에 일종의 연방적 형태를 취한 제국이에요. 중국이 아주 중앙집권적인 제국이라면 팍스로마나는 여기에서 일단 상납만 일정하게 하면 오랑캐가 아니라 팍스로마나의 그걸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국론의 1장, 세계질서에 보면 로마에서 동로마로의 발전과 동로마제국이 왜 몰락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지금 로마의 이런 제국적 방식은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정립하려고 하는 제국론하고 구조적으로는 일단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죠.

로마의 그런 네트워크적, 분산적, 연방주의적 논리가 미국 헌법에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제국질서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동로마 제국에서 가서 로마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용병화, 그러니까 각 부분들에서 용병들이 나타나가지고 용병들이(이동하는 용병들이죠) 여기에서 이걸 지배하는 게 아니고, 용병들이 곳곳에서 자기네들의 통치지역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병대장의 반란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병은 특정한 민족출신이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싸움을 통해서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집한 것인데, 용병들이 점점 분리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죠. 분산을 넘어서 분리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스스로 제국으로 선언을 해버린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동로마제국은 더 이상 팍스로마나로 유지될 수 없게 되고, 제국의 해체가 일어나게 된다. 라고 보게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군의 성격을 보면 용병부대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그 사람들, 또 미국에서 아주 살기 어려운 백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벌어먹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제국이후에는 홀로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도 많은 군대들을 연합시켜가지고 전쟁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연합군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한국이라거나 또 독일이라거나 이탈리아라거나 이런 나라들의 군대를 차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신 싸우게끔 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진지도 바로 그런 식으로 흩어진데다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싸움을 벌이는데,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바로 한국처럼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을 할 때에 미국의 용병이었던 나라죠.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에 후세인은 미국편이었거든요. 미국이 호메이니로부터, 호메이니가 이중적 성격을 갖는데, 호메이니는 아주 지배적인 절대 보수적 종교로서의 이슬람을 옹호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에서는 굉장히 지금의 마치 차

베스처럼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 이중성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혁명적 성격도 호메이니에 나타나거든요. 호메이니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후세인을 이용해가지고 8년 동안 싸움을 벌이게 만들었을 때, 후세인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미국에서 배웠거든요.

그때 레이건이라거나(80년부터 88년까지니까 레이건이 대통령이었을 때이죠) 실질적으로는 군사전략이라거나 전술 모든 걸, 미국에서 배워온 바로 그것가지고 이후에 미국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 『다중』이라는 책에 보면 분석이 나오는데, 바로 후세인의 도전을 용병대장의 도전을 이해해야 된다. 과거의 동로마제국의 몰락과정하고 형태적으로 너무나 유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중화의 경우에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선 세계사에서 보면, 아시아권이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가장 발전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화의 초기에는 아시아가 선진국이었다는 거죠. 중동까지 포함해서. 서구는 변방이었어요. 중화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의 오랑개들의 나라였죠. 여기에는 중앙집권적 권력이 성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생산이나 많은 부분들이 후진적인 방식으로 남아있습니다(중국이 보기에는). 저기 뭘니까. 아주 고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비단 같은 종류들은 서구에서 나오지를 않았었거든요. 서구가 바로 그런 변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제국의 이런 분산성, 연방성을 제국구축의 무기로 사용했다면 아시아권은 전근대적 국가이지만 아주 중앙집권화된 국가체제로 제국을 구축해나가기 때문에 하이라키가 아주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간단히 본다면 지금 중국이 미국을 대체한다. 이 발상은 제국론에서 보면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낡은 옷을 새로운데다가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는 자본들이 중국의 국내자본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다 해외에서 유입된 자금이고, 30년 전에 개방화를 시작할 때에 무엇에 개방하는 것이예요? 외래 자본에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외래 자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중국 국내의 노동력으로 하여금 생산을 해서 말하자면 중국의 산업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있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의 공장으로, 지금은 세계의 시장으로 점점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일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그런 현상과는 다른 풍경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의 공항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중국 공항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 세계적인 공항으로 나타나면서 자본주의 세계 그 질서 자체에 전면적인 재편을 요구받게 될 터인데, 그때 아래로부터의 힘들이 자기의 창의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가 그냥 과거적 형태로 복귀하느냐. 아니면 현재의 제국적 형태로 다시 재구축되느냐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갈림길 위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80년대에도 남한자본주의라고 자꾸 쓰는데, 이 남한자본주의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런 논쟁들 많이 했습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게 거의 지구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런데 오늘날 중국 경제라는 게 과연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국내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 관념 속에나 있는 것이지 중국경제, 중국시장이라고 하는 건 세계경제를 이미 전제하면서 어떤 국지적인 지역에서 뭔가 하는 그 현상인 것이지 다른 경계와 구획되는 중국경제란 건 독립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유일세계경제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다 다루기는 오늘은 간단하게 그 정도로만 답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 와야 할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오늘이 3강 짜입니다. 그래서 주권의 이행부분을 바로 다루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책의 체제를 설명 드린 것처럼 1부의 1장이 바로 주권이행을 압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세계질서라고 하는 게, 그래서 1부의 1장 즉, 27페이지에서 51페이지하고, 제2부, 109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 주권의 이행부분, 여기까지를 일단 다음시간에 읽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은 편이지만 오늘 커다란 골격, 오늘 이 그림을 잊지 마시고요. 커다란 골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